

# 후티반군 공격에 수에즈운하 막히나

### 세계 상품 교역량 12% 흥해 통행 선박 위협...바닷길 일부 막혀 물류비 상승→소비자 전가 우려...유가 상승 등 물가에도 부담

불안한 세계 경제에 국제 교역의 주요 바닷길이 세밀에 위협받는 또 다른 악재가 불거졌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의 수위가 이상 가뭄으로 낮아져 선박 통행이 제한된 데 이어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홍해 항로가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인 후티의 상선 공격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등 주요 상선들이 긴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등 운항에 차질을 빚으면서 물류비가 뛰고 제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이어 미·중 간 긴장 고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 여파로 시름하는 세계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들을 공격함에 따라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있는 홍해 항로는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의 12%가 지나가는 곳이다.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 이후 유럽과 미국으로 향하는 아시아와 중동의 상품 및 원유 등이 이곳을 거쳐 간다.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거리 바닷길이다.

그러나 후티 반군의 잇단 공격에 선박 운항이 줄어들고 있다.

금융정보업체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보통 하루에 약 50척의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이용했는데 지난 18일에는 최소 32척이 우회했다.

영국의 글로벌 에너지기업 BP는 18일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유조선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1위 해운사 MSC를 비롯해 머스크(2위), CMA CGM(3위), 하파그로이드(5위), 에버그린(7위), 한국 HMM(8위), 양명해운(9위) 등 10위권 선사가 줄줄이 홍해 통과를 중단하거나 우회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가는 선박이 홍해 대신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가는 희망봉 항로를 이용할 경우 거리가 기존보다 거의 40%(5천311km)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료비만 수백만달러(수십억원)를 더 써야 하는 일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같은 물류비 급등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애쓰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노력을 끼얹을 수 있다.

지난 한 주간 브렌트유 가격이 약 8% 오르는 등 국제유가가 홍해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무역 규모가 작년보다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홍해 사태가 길어지면 세계 교역이 더 위축될 수 있다. /연합뉴스



중 간수성 6.2 강진 127명 숨져 19일 중국 서북부 간수성 지스산현에서 구조대원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 올라가 구조·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날 오후 11시 59분께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이날 오후까지 127명이 숨지고 73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日도시바 74년만에 도쿄증시 상장폐지

### 투자펀드 JIP가 인수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도시바가 20일 74년 만에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일본 투자펀드 '일본산업파트너즈'(JIP)는 경영난에 빠진 도시바의 주식을 공개매수에 인수했다.

도시바는 오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대부분을 JIP나 출자기업 출신으로 바꿀 방침이다. JIP 측은 향후 도시바의 인력 및 사업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JIP는 이를 통해 도시바의 기업 가치를 올려 5년 뒤 재상장할 목표를 세웠다.

JIP가 도시바 인수에 투자한 금액은 2조엔(약

18조원)가량으로 은행에서 빌린 1조4000억엔은 도시바가 갚아야 한다.

도시바는 1949년부터 74년간 도쿄 증시에 상장됐던 일본의 대표 기업 중 하나다.

노트북과 반도체 낸드플래시메모리 등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하지만 2015년 회계 부정 문제와 2017년 미국 원자력발전소 자회사의 거액 손실 등으로 위기에 빠져 경영 재편을 모색하다가 작년 11월 인수를 제안한 JIP와 손잡고 주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도시바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 반도체 메모리 부문 등을 매각하고 현재 상수수도와 발전소 관련 등 인프라, 전기차 등의 전력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파워반도체 등과 관련한 사업만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13개 중소기업 추가

### 中 대사관 "무역문제 정치화" 반발

중국 13개 기업이 미국의 '잠정적 수출통제' 대상 명단에 추가로 올랐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중국 PNC 시스템을 비롯한 13개 기업을 '미검증 기관 명단(UVL·Unverified List·수출 통제 우려 대상)'에 추가 등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UVL에 추가된 중국 기업은 장쑤성 소재 PNC 시스템을 비롯해 베이징 생보 시에통 테크놀로지, 광저우 신웨이 트랜스포테이션, 사면의 플렉서스 등이다.

UVL은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의 직전 단계로, 미국 기술이나 상품을 수입할 자격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미

국 관리들의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기업들이 명단에 오른다.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따라 이들 기업은 자국 정부의 불허로 미국 관리들의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60일 뒤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장 조사가 허용되고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곧바로 UVL에서 빠질 수 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국가안보의 개념을 일반화해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적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중국 대사관은 미국이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UVL 추가 등재도 이런 미국의 행동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미국 반전 활동가들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중앙의 로터나홀을 점거하고 가짜지구 즉각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앞선 두 차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가짜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인질 40명 석방 대가

### 모사드 국장 "카타르 통해 제안"

이스라엘이 '인질 오인 사살'로 후폭풍에 직면한 가운데 인질 30~40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하마스에 최소 일주일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미국 인터넛매체 약시오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약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두 명과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하마스에 이같이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은 전날 빌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와 바르사바에서 만나 세 협상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바르니아 국장이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약 40명을 석방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 개시 제안을 했다고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약시오스에 전했다.

이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최소 1주간의 일시 휴전에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인질 40명 중에는 하마스에 억류된 나머지 여성들과 60세 이상의 남성, 아프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휴전 당시 이스라엘 인질 105명이 풀려나는 대신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240명이 석방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달 휴전 당시

보다 이스라엘에 대해 더 심각한 공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석방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중에 고령이거나 병든 사람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석방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이번 제안은 후속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스라엘 측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이번 제안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공격이 멈추기 전까지는 인질 석방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이스라엘은 더 많은 인질 석방을 위해 진지하게 협상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